

한국지엠 '정리해고' 우려 줄어

전직원 15% 2500명 희망퇴직 신청...군산공장 노동자 다수 노조 7일 4차 교섭 재개...정부·GM 실사 세부사항 기싸움

1만6000명에 이르는 한국지엠 직원의 약 15%인 2500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사측의 '정리해고' 가능성은 일단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여전히 당초 목표치인 3000명엔 못미치는데다, 경영정상화를 위해 추가 비용절감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어 사측이 어떤 선택을 할지 유동적인 상황이다. 결국 7일 재개되는 노조와의 입단협이 향후 방향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전망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부평·창원·군산공장 인력 등을 대상으로 지난 2일까지 희망퇴직을 접수받았다.

초기에는 신청자가 적었지만 한국지엠 사측이 '마지막 기회'임을 강조했고, 희망퇴직 신청자가 적을 경우 '정리해고' 수순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접수 마감을 앞두고 신청이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지엠은 정규직 직원에 한해 희망퇴직 위로금으로 근무기간에 따라 통상임금의 2~3년치 지급, 학자금 2년 지급, 자동차 구입비 1000만원 지

급 등을 제안하고, '이런 조건의 희망퇴직 기회는 마지막'이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수차례 직원들에게 발송, 희망퇴직 신청을 독려했었다.

그 결과 2500명에 가까운 직원이 희망퇴직을 신청했으며, 이중 한국지엠이 폐쇄를 결정한 군산공장에서만 950명에 달하는 희망퇴직 신청자가 나왔다. 군산공장 생산직 노동자의 3분의 2에 달하는 규모다.

당초 한국지엠은 이번 희망퇴직을 통해 정규직 3000명 가량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2일 자체 입수한 문서를 근거로 한국지엠이 전체 직원의 30%인 5000명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우리 정부에 제출했다고 보도했지만, 정부와 한국지엠은 모두 이를 부인한 상황이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이번주 신청자에 대한 승인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필수인력이 희망퇴직을 신청했을 경우 반려될 수도 있어 최종 집계 나오려면 좀 더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2500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한 만큼 승인 절차로 인원이 줄어든

다고 해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강제적 정리해고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것이 업계 분석이다.

다만 카터 카셋 한국지엠 사장이 지난달 28일 전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전무급 이상 임원 30%, 모든 본사 파견 외국인 임직원(ISP) 임원 45%, 모든 직급의 ISP 50% 감축, 상무급 임원 및 퇴장급 20% 감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해당 직원들의 강제적 감축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한국지엠 사측은 희망퇴직으로 3500~4000여원의 인건비·부대비용 절감이 이뤄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사측은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영업적자폭인 5000~6000여의 비용절감이 이뤄져야 한다고 한다고 판단하고 있어 약 2000여원의 추가적 비용절감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노사는 오는 7일 4차 교섭을 재개하고, 고동분담 규모를 놓고 줄다리기를 시작할 계획이다.

노조 측은 "7일 입단협을 재개할 예정"이라며 "노조안은 아직 바뀐 것이 없고, 사측 역시 노조에 공

식적으로 안을 제시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사측은 임금동결과 성과급 불가, 정기승급 시행 유보, 복리후생비 절감 등을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고동분담의 전제조건으로 모회사 제네럴모터스(GM)의 한국 신차배정, 자본투입 확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교섭의 분위기는 무르익고 있다. 군산공장 노동자 3분의2가 희망퇴직을 신청하면서 노조 측이 주장해온 군산공장 폐쇄 철회 주장의 동력이 약화됐고, 노조가 요구했던 외국인 임원 감축 등을 사측이 수용하며 교섭의 여건이 조성됐다는 분석이다.

한편, 산업은행과 GM은 한국지엠의 실사 범위와 방법, 기간, 목적 등을 두고 여전히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이동걸 산은 회장과 배리 앵글 GM 총괄부사장 겸 해외사업부 사장은 지난달 21일 한국지엠 실사에 합의하고, 삼일회계법인을 실사 담당기관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세부사항에 대한 양측의 합의가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어 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정부와 산은은 각종 의혹을 제대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3~4개월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GM측은 1~2개월 안에 끝내자고 맞서고 있다. /뉴시스



유스퀘어(광주중합버스터미널)는 오는 16일까지 자율주행 안내로봇 서비스를 시범운영 한다고 5일 밝혔다.

광주 유스퀘어, 자율주행 로봇 '에디' 시범운영

오는 16일까지 매장 위치·경로 안내 서비스

유스퀘어(광주중합버스터미널)는 오는 16일까지 자율주행 안내로봇 서비스를 시범운영 한다고 5일 밝혔다.

유스퀘어 안내로봇 에디(ADDY)는 원리로보틱스에서 개발하고, 아시아나 IT가 서비스 모델과 콘텐츠 개발, 컨설팅을 수행했다.

안내로봇 '에디'에는 자율주행 기능이 가능한 라이다 센서(LIDAR)와 비전센서 등이 탑재돼 주변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가속과 감속 제어 등이 가능하다.

또 하단 4면의 LCD 디스플레이와 상부 음성인식·터치기능을 통해 이용객들에게 유스퀘어 내 주요 시설과 매장 안내, 문화관 행사, 프리미엄 버스 안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에디는 이번 시범운영 기간 동안 1층 대합실 주변을 자율주행하며 고객들에게 원하는 매장 위치와 경로 등을 직접 알려주고 편의를 도울 예정이다.

유스퀘어는 시범 운영기간 동안 고객이 로봇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사진촬영 이벤트를 비롯, 남도한바위 등 원하는 여행코스과 요금을 상세히 안내해주는 여행안내 등 유용하고 재미있는 다양한 기능을 선보일 예정이다.

유스퀘어 관계자는 "고객 편의를 위해 유스퀘어에서 안내로봇을 시범 운영하게 된 만큼 많은 분들이 재미 있고 편리하게 이용하셨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4차 산업시대에 발맞춰 더 나은 스마트 터미널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대통령 표창 받은 하정우·김혜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52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모범납세자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배우 하정우, 김혜수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목포수산물식품지원센터 '해수부 창업·투자' 공모 선정

목포시는 출연기관인 (재)목포수산물식품지원센터가 해양수산부 공모 사업인 '2018년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사업'에 (재)전남물산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해양수산 관련 기업의 창업을 성장단계별로 지원함으로써 수산가공 관련 전후방사업의 기업생태계 조성을 강화해 고용증가 및 기업의 매출 증대를 목적으로 기획했다.

총사업비는 51억원으로 (재)목포수산물식품지원센터는 3년간 21억원을 지원받는다.

양 기관은 창업 유망아이디어 발굴 및 창업지원, 수산물 유래 수출형 가공 제품 개발 및 기술 컨설팅, 해외 시장 진입을 위한 마케팅 전략 수립, 홍보·마케팅 지원 등 총 92건의 세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4월부터 추진한다.

오병준 센터장은 "대양산단에 오는 2020년까지 조성 예정인 수산식품수출단지와의 연계해 목포가 수산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취임 2년 김병원 농협회장 "연내 3200여명 정규직 전환"

청년창업농 1200명에 월 최대 100만원 지원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사진)이 올해를 농협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취임 3년차 목표를 발표했다.

비정규직 직원의 60%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정부의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에 기술과 자본을 지원하는 식이다.

농협의 공익적 가치가 개헌 논의에서 더뎌야 한다고도 피력했다.

김 회장은 5일 오전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상반기에 비정규직 직원 5245명 중 3214명(61.3%)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하고선 급변 안에 정진적으로 전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농협은 지난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9년까지 전문직과 계약직 등을 제외한 비정규직 5245명을 100%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영농 의지와 발전 가능성이 큰 40세 미만 청년창업농 1200명에게 월 최대 1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가장 3년간(독립경영 1년차는 3년, 2년차는 2년, 3년차는 1년) 지원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영농정착지원사업에도 적극 동참한다.

그는 "농촌은 일자리 창출의 최고의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육성하는 1200명이 농촌에 동지를 될 수 있도록 농협이 기술과 자본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농협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위해 청년·중년여성농업인 최고경영자(CEO)중앙연합회 육성, 농업인 부실채권 보유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공익형 직불제 구체화 도모,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쌀공장 2곳 오픈 등도 연내 진행한다.

김 회장은 또 취임 1주년때 발표한 '2020년까지 연간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 목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연차별(2018년 2조 5052억원, 2019년 2조 9782억원, 2020년 3조 6357억원) 소득기여 목표를 설정하고, 6대 핵심역량별 100대 과제의 발굴·추진을 가속화한다.

농업인이 제값 받는 농산물 유통체계인 '품목전국연합'을 구축·확대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먹거리 공급에 주력한다. 빅데이터·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농업 분야 확산에도 힘쓴다.

그는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과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을 만들기 위해 환부작신(換腐作新)의 각오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명시하고 농업인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반영해야 한다는 견해도 피력했다.

김 회장은 "올해 만에 하나 개헌이 된다면 반드시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반영되도록 범국민 공감대 확산을 적극 추진하겠다. 농촌 가꾸기 운동을 적극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한 달 휴일 3일뿐...소상인 삶의 질 '50점대'

음식점업·소매업 하루 노동시간 11시간 넘어

소상인들의 일과 삶에 대한 만족도는 긴 노동시간과 여가시간 부족으로 인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전국 자동차·부품판매업, 도매·상품중개업, 소매업, 음식점업 등 4개 업종 5인 미만 소상공인 700명 대상 '소상인 일과 삶의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한 달 평균 3일 휴무, 주 6일 이상 하루 평균 10.9시간 영업 등으로 일과 삶의 만족도가 모두 50점대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음식점업·소매업의 경우 하루 평균 노동시간이 각각 11.4시간, 11.1시간으로 가장 열악함에도 평균 순수입이 다른 업종보다 낮아 노동시간·순수입 불균형이 가장 심각했다.

긴 노동시간으로 인해 소상공인 느끼는 사업의 전반적 노동강도는 100점 만점에 65.6점을 기록했다. 업종별로 음식점업과 자동차·부품판매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의 노동강도는 각각 70.7점, 68.0점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회 측은 일부 업종에 따라 노동강도가 더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가족기업의 노동강도(67.2점)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분야별 사업운영 만족도'에서는 기업승계(현재의 사업을 가족에게 물려줄 마음이 있다) 부분이 2.25점, 노동시간(사업운영을 위해 일하는 노동시간이 적정하다) 부분이 2.39점으로 가장 부정적으로 파악됐다. /뉴시스

여수광양항만공사 자회사, 104명 정규직 채용

특수경비·배후단지 관리용역 근로자 등 사원증 수여

광양항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용역근로자 104명이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여수광양항만관리(주)대표이사 박원)는 5일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된 특수경비용역 근로자 및 배후단지 시설관리용역 근로자 등 총 104명에게 사원증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YGPM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여수광양항만공사(YGPA)가 100% 출자해 지난해 12월 6일 설립한 자회사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로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YGPM은 정규직 전환 추진절차에 따라 대상자 157명에 대한 전환 계획을 수립했으며, 1단계로 특수경비용역 및 배후단지 시설관리 용역근로자 104명을 지난 3월 1일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YGPM은 앞으로도 광양항 전기공



급시설(154KV) 관리, 항만전산화(Port-MIS) 관리, 월드마린센터 관리 용역 등 비정규직 53명에 대해서도 이미 정해진 채용 절차에 따라 올해 순차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 원 대표이사는 "항만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수광양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뉴시스